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핵심 본문: 이사야 **66:1–6**

영상 참고: 임마누엘교회 강단 요약

1. 서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의 단순함

- 쉽고 분명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복잡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실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 말씀과 그 흐름을 붙잡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하나씩 쌓이고, 우리의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 영적인 위치를 아는 것: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시간표를 분별하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현재 나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사야 **66:1–6**

-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YHWH)**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사건을 일으키시고 상황을 이루시며, 자신의 거룩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성도는 결과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거나 상황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역전시키시고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 관점을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를 참되게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건과 위기와 상황을 단순히 문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응답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3. 전도와 제자 사역의 눈이 열리는 것

- 자연스러운 전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 실제적인 돌봄과 후속 사역: 참된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돌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와 마음을 세심하게 돌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인본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시간표: 영적인 성숙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돌봄은 단순한 인본주의적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열어 주시는 때를 따라 참된 열매와 제자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역전과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 인내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 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제자를 세워 가십니다.
-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위에 서고, **24**시간 기도를 세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사람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